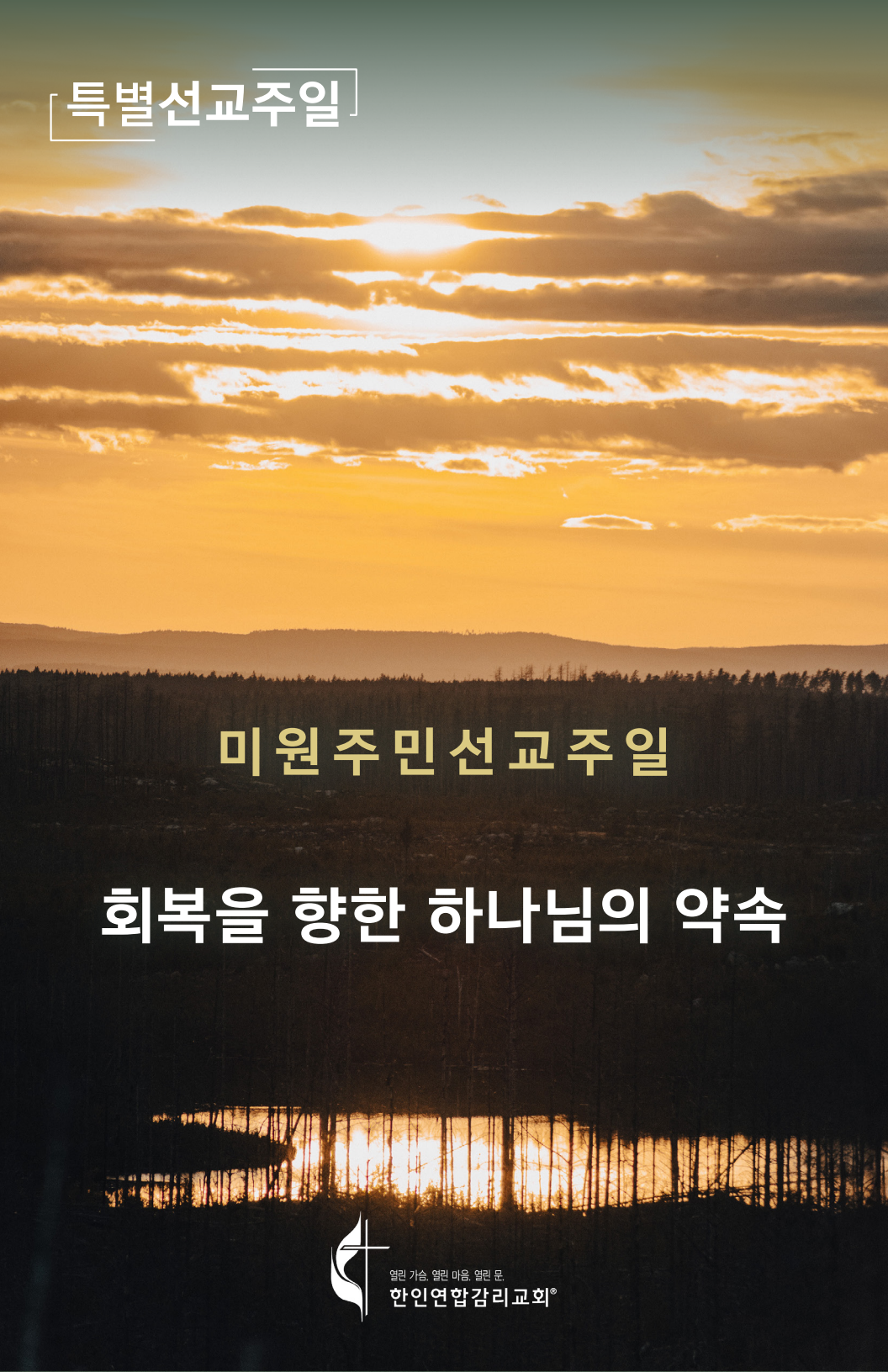
특별선교주일
미원주민선교주일
회복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
열린 가슴, 열린 마음, 열린 문.
한인연합감리교회®

특별선교주일

미원주민선교주일
회복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사도행전 2:39

"땅이 우리의 것이니 우리가 돌봐야 한다는 식의 사고는 옳지 않습니다. 반대로 우리가 땅의 것이고 땅이 우리를 돌봅니다. 무수한 세대가 지나는 동안, 땅은 공기, 물, 과일 등 아무것도 금하지 않고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었습니다."

—**체본 커넬 목사,** 연합감리교 미원주민종합계획 대표

미원주민종합계획은 2021–2024 아래와 같은 비전을 갖고 사역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 **미원주민 언어 보존**
- **미원주민 토착 영성 이해**
- **확산 중인 미원주민 여성 및 어린이에 대한 폭력 문제 해결**
- **전 세계적 기후 정의 추구**

후원 방법:
체크 메모난에 "미원주민선교주일"이라고 적어 소속 교회에 헌금하세요. UMC.org/SSGive에서 온라인으로 후원하시거나 월 정기 후원을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열린 가슴. 열린 마음. 열린 문.
한인연합감리교회®

특별선교주일

미원주민선교주일

회복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

오늘은 미원주민선교주일이며, 교단에 속한 모든 교회가 함께 미원주민들을 위한 연합감리교회의 사역을 후원하는 특별선교헌금을 드립니다.

미원주민선교주일 헌금은, 연합감리교회가 교단적으로 행하는 6개의 특별선교헌금의 하나로, 미원주민 목회자, 교회, 신학생을 준비시키고 그들에게 힘을 실어주어, 그들이 미원주민으로서 자유롭게 예수님을 예배하고 섬기게 합니다. 헌금의 절반은 우리 연회와 지역의 사역에 사용되며, 나머지 절반은 전국 단위의 연합감리교회 미원주민 사역을 후원합니다.

연합감리교회, 세상, 우리 지역사회는 변화의 시기를 맞고 있으며, 이 회복의 시기에 하나님은 우리를 동역자로 부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역하는 한 가지 방법은 특별선교주일 헌금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물은 연합감리교회에 속한 다른 교회들의 헌금과 함께 미원주민 사역을 강화하고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경험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 어느 때보다 더 상하고, 소외된 채 기회를 잃은 이들에게 치유와 소망을 제공하는 변화의 사역으로 연합감리교인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물질과 후원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과 그분의 창조 세계와 협력하여 모든 이들을 복되게 할 그리스도의 사랑의 임재를 더 분명히 드러냅니다.

연합감리교회 특별선교주일 예물은 변화를 만드는 지역사회에 투자되어 지도자들에게 힘을 실어주고 평화와 정의의 사역을 후원합니다. 공동의 사역을 위해 우리의 자원을 집중하는 일은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는 일이며 모든 문화, 언어, 전통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과 동역하는 일입니다.

미원주민주일 특별선교헌금을 통해 회복, 배상, 기쁨의 사역에 동참하세요

열린 가슴. 열린 마음. 열린 문.
한인연합감리교회®